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2014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3
II. 방문지 정보	5
III. 연수결과	7
1. 행정수도 푸트르자야	7
2. 첨단복합도시 사이버자야	11
3. 이안모이 노인복지시설	15
4. 멜라카 역사박물관	17
5. 싱가포르 국토 재개발청	18
IV. 우수정책 및 시사점	19
V. 세종시를 위한 제언	21
VI. 연수후기	26

- 우수시책 견문을 통한 의회 의정 역량제고 -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I

연 수 개 요

- ☐ 기 간 : 2014. 11. 4(화) ~ 11. 8(토) / 3박5일
- ☐ 연 수 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12명)
- ☐ 연 수 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 목 적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시책 견학
 - ⇒ **공무국외연수 견문을 통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역량제고**
 - 시찰도시의 정책 및 우수사례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세종시의회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및 벤치 마킹
- ☐ 보고서 작성자 : 의정담당관 방송통신주사보 문정원
- ☐ 연수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세종시의회	의장	임상전	
2	"	위원장	서금택, 이충열, 고준일	
3	"	의원	김복렬, 이경대, 정준이	
4	"	행정복지 전문위원	권영운	
5	"	주무관	이장주, 문정원	
6	세종시청	의회협력담당	박대중	
7	"	주무관	이석빈	

□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여 행 일 정	비 고
1 일 차 11.4(화)	인천 (16:55)	쿠알라 룸푸르 (2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원 출발(12:00) ○ 인천공항 도착(14:30) ○ 말레이시아 출발(16:55) 	
2 일 차 11.5(수)	쿠알라 룸푸르	말라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트라자야 행정수도 방문 - 최첨단 행정수도 ○ 문화와 첨단기능 복합형도시 사이버자야 방문 ○ 말라카 이동 	쿠알라룸푸르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3 일 차 11.6(목)	말라카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 MELAKA 시찰 - 말레이시아 역사관, 독립기념관 ○ 싱가포르 이동 	말라카 싱가포르
4 일 차 11.7(금)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항 (2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시설 방문 - 비영리자선단체 ○ 국토 재개발청 방문 - 도시계획과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 	싱가포르
5 일 차 11.8(토)	싱가포르 (22:30)	인천공항 (0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05:40) ○ 조치원 도착(08:30) 	싱가포르 인천

푸트라자야 (Putra Jaya)

1. 개요

연방정부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남쪽으로 약 28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신공항인 K.L.I.A와 쿠알라룸푸르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신행정도시로서 접근성을 극대화 하였다.

신행정도시 건립사업은 연방정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교통의 체증 등의 문제로 전격 건립을 결정 1990년초 최초 부지 선정과 신도시 설계를 시작하여 1995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신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정부 주무부처가 이전을 시작하면서 2001년 2월 1일 신행정도시로 쿠알라룸푸르, 라부안에 이어 연방정부의 세번째 특별시로 공식 천명되었다.

현재, 국제통상부, 국방부, 그리고 노동부를 제외한 모든 주무 부처가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건립 예산 및 도시 특징

푸트라자야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총 건립비가 약 8조 2천억(USD8.1 Billion) 에 이른다. 또한, 신행정도시로서의 자금심을 고취하기 위해 100% 말레이시아 기술과 설계로 건립되었다. 그리고 도시전체의 약 38%를 녹지 및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 및 친환경 도시로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3. 한국과의 관계

푸트라자야는 한국의 세종시와 2013년 4월 상호간 양해각서(L.O.I)를 체결하여 행정도시로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이버자야 (Cyber Jaya)

1. 개요

사이버자야는 멀티미디어 광역기지로서 말레이시아의 IT 관련 허브이며 첨단 광통신망(CyberJaya Metro Fibre Network)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멀티미디어 관련 업체들은 물론 최첨단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유통업체 및 제조업 기업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MSC¹⁾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며 선정된 업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부여하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현재 약 5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로는 Dell, HP, BMW, DHL, IBM, Shell IT, Ericsson, Motorola, 등이 있다.

2. 인구 및 면적

사이버자야의 총 면적은 약 28.94 평반 킬로미터이며 현재 상주 인구는 약 10,000 명 정도이며 하루 유동인구는 약 43,000 명 정도이다. 아직은 사이버자야내의 거주지역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상주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교육 시설

멀티미디어 대학 (Multimedia University)을 선두로 5개의 멀티미디어 및 정보 통신, 창조과학 및 컴퓨터공학 학부의 대학들이 운영되고 있다.

약 20,200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약 19%는 80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1) Multimedia Super Corridor

① 행정수도 푸트르자야**□ 방문개요**

- 일 자 : 2014. 11. 5(수) 10:00
- 장 소 : 푸트르자야 개발청
- 면 담 자 : 푸트르자야 개발청장 및 직원

□ 푸트르자야 행정도시 추진 과정 브리핑

- 본래 연방정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문제 등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됨
- 1995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푸트르자야는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3개 연방직할령 중의 하나이며 13개 주와 동등한 지위를 가짐
- 푸트르자야 전체 면적은 49km²이며 인공호수 약 120만평, 인공습지 약 60만평 등 자연 및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의 38% 정도를 녹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음
- 1995년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몇개 관청을 제외하고 2011년 대부분 완공되었으며, 초기에는 수상 등 40여명이 거주를 시작하였으나 현재 10만 8천명이 거주하고 있음.

□ 주요 면담내용(푸트르자야 개발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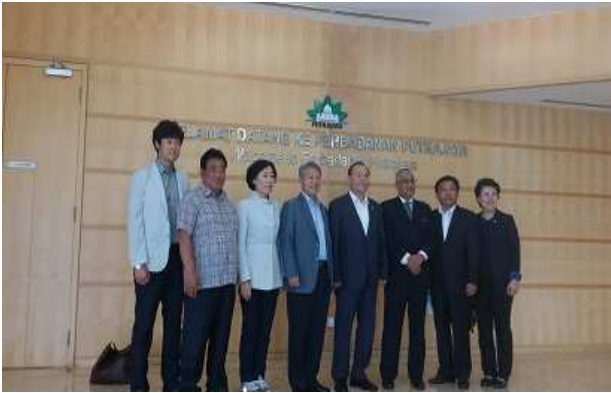
- 푸트르자야에 입법, 사법, 행정 관청이 모두 이주 하였습니까?
 - 국회, 법원, 수상청 등 이주 계획에 의거 이주를 하였으며 2025년까지 모든 이주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들이 푸트르자야 이주에 찬성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주 초기에는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상과 4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하여 모범을 보였고 문화, 교육, 주거 등 살기 좋은 정착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22개 청사에 10만 8천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주 공무원들에 대해 주택구입 같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 결혼한 공무원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자금은 월급에서 감하여 20년 정도 근무하면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푸트르자야 행정수도 건립 과정에서 재정적 문제가 없었습니까?
 - 푸트르자야 행정도시는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푸트라자야 홀딩스라는 개발주체를 내세워 9조원을 들여 건립하였고 정부는 25년간 건물 사용임대료를 푸트르자야 홀딩스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건립되어 정부의 특별한 재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 푸트르자야 교육환경(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 말레이시아 교육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며 현재 23개 학교가 있으며 푸트르자야시에는 대학교는 없고 국제대학캠퍼스가 1곳 있습니다.

- 푸트르자야는 낮에 근무가 끝나면 밤에는 도시가 한산하다고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푸트르자야 치안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푸트르자야 건립초기에는 시외에서 출퇴근 사람들로 인해 도시가 한산하여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푸트르자야나 사이버자야와 같은 도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에 담이 없고 조경으로 담을 대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푸트르자야는 수상청 직속 도시이기 때문에 치안 및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 푸트르자야 공무원주택은 인구대비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 푸트르자야는 공무원과 민간근로자가 각각 50% 정도 거주함에 따라 이 비율에 맞게 공무원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아직 이주하지 않은 몇개 관청이 2025년까지 이주할 예정이고 2025까지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방문 사진



〈푸트르자야 개발청 방문〉



〈행정수도 구축 관련 의견교환〉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약속〉



〈수상 집무실〉



〈행정수도 호수공원〉



〈공무원 입주 주택〉

② 첨단복합도시 사이버자야 방문

□ 방문개요

- 일 자 : 2014. 11. 5(수) 15:00
- 장 소 : MSC 말레이시아 본관
- 면 담 자 : MSC 말레이시아 관리책임자 및 직원

□ 사이버자야 개발 현황 브리핑

- MSC 말레이시아는 1996년 10월 조직되어 현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개발부서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칩(chip)부서가 있습니다.
- 쿠알라룸푸르 남서쪽 약 40km 거리에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된 계획도시로서 도시 총 면적은 29 km² 정도이며 약 70,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자야는 멀티미디어 광역 허브 도시로서 40여개의 글로벌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그 외 460여개의 중소 멀티미디어, 광통신 및 IT 기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 교육시설로는 멀티미디어 대학 등 5개의 정보통신, 창조과학 및 컴퓨터공학 대학이 있습니다.
- 근무는 사이버자야 소재 기업에서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도 행정도시와 첨단기업도시로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주요 면담내용(MSC 말레이시아 관리책임자)

○ 사이버자야 발전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996년에서 2003년까지 ICT 광역 허브 역할의 기본단계, 2004년부터 2010까지는 정보통신 및 IT기술 성장단계,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는 안정화 단계로 계획성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국기업이 사이버자야 입주시 부지 할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외국기업이 부지매입을 원하면 매입이 가능하며,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자신들이 이용할 건물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의뢰하고 우리는 의뢰한 디자인 대로 건립하며, 기업은 입주 후 임대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사이버자야에는 40여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보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입주한 기업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power)과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기업의 100% 소유· 임대를 인정하고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면제혜택을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을 개방하여 기업체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입주하려는 자국 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 사이버자야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어느 기업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및 IT 관련하여 MSC 말레이시아가 인정한 회사이어야 합니다. 입주기업은 글로벌기업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사이버자야 개발에 국가 외에 자국 사기업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정부(재정경제부)가 사이버자야 개발에 92%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출연기관 및 공기업이 8%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푸트르자야와 사이버자야 간 연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푸트르자야와 사이버자야는 계획도시로서 개발 목적이 서로 다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및 쓰레기 처리도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현재 76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고 들었는데 농업 관련 창업기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말레이시아는 5개의 사이버시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말레이시아 서북쪽 사이버시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이버자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사이버자야는 현재 ICT 광역 허브 및 정보통신 성장단계에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단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의 친환경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방문 사진



<MSC 말레이시아 본관>



<사이버자야 개발 과정 소개>



<개발 현황 의견교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면담>

③ 이안모이 노인복지시설

□ 방문개요

- 일 자 : 2014. 11. 6(목)
- 장 소 : 싱가포르 톰슨로 460
- 면 담 자 : 노인복지시설 관리책임자

□ 주요 설명내용

-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 단위의 노인복지정책과 정에 의한 동양적 정서를 중시하며, 연금제도(65세이상 노인은 연금혜택),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등 노인복지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보건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병원과 집을 포함한 통합적 의료지원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 이안모이 복지시설에는 외국인은 없고 주로 115명의 싱가포르 저소득층의 노인이 대부분이며, 정부의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 또한, 이안모이 복지시설도 인근 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에 반대하여 8번 이사를 할 정도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 이안모이 복지시설은 저소득층(무연고자 포함)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싱가포르의 더운 날씨로 인해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방문 사진



<이안모이 노인복지시설 입구>



<노인복지시설 책임자와 면담>



<노인복지시설 방문 1>



<노인복지시설 방문 2>



<노인복지시설 방문 3>



<노인복지시설 방문 4>

4 멜라카 역사박물관

□ 주요 관람내용

- 멜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15세기까지 중국 명나라와 대외관계 속에 무역과 이슬람교의 중심지로서 번영을 이뤘지만 그후 1957년 독립까지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있었다. 이번 관람 유적은 15세기에서 독립시대까지의 말라카 술탄국 시대의 이슬람 유적, 이주민들의 유적과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의 유적에 관한 것이었다.

독립기념관의 전시물을 보며 외세의 아픈 침략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독립을 이룬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산티아고 요세〉



〈말레이시아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시물〉



〈네델란드 건축양식의 성당〉

⑤ 싱가포르 국토 재개발청(URA)

□ 주요 관람내용

- URA는 싱가포르의 도시계획과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URA는 낙후된 도시를 재개발한 후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뉴타운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URA의 전시관을 통해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계획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과정>



<URA의 전시물>



<뉴타운 도시개발 추진과정>



<뉴타운 도시개발 모형도>

□ 신행정수도 푸트르자야

- 호수와 다리, 조경, 정부청사 건물 등이 잘 조화를 이룬 정원도시
 - 개성있는 정부청사 건물, 종교시설 및 주택이 조화롭게 건설
 - 구역별로 다른 디자인의 가로등 및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호수공원 종교시설〉



〈구역별 개성있는 가로등〉

- 세계화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 국제컨벤션센터의 국제회의 개최
 - 국제적인 스포츠 개최(말레이시아 그랑프리, 호수공원 요트대회 등)
- 다양한 문화공간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 국제컨벤션센터 1층을 개방하여 시민의 휴식 및 관람공간으로 활용
 - 호수공원 유람선관광, 수상스포츠(카약, 조정) 공간 마련
- 민간개발주체의 자본으로 신행정수도를 건립하여 정부는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 없이 건설 추진



〈호수공원 전망이 가능한
국제컨벤션센터〉



〈국제컨벤션센터 1층을 시민에
개방하여 각종 행사 개최〉

□ 첨단복합도시 사이버자야

- 글로벌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그린,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기술 개발 추진

□ 싱가포르 노인복지시설

- 정부의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과 노인복지제도 및 집-병원 연계 의료프로그램 도입 검토
- 불효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화

문제 및 시사점

- 사이버자야는 정주여건 미비와 시외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으로 인해 주말이 되면 거리가 매우 한산해 문제가 되었음.
⇒ 세종시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 시설 확충이 필요함

국외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심도 있는 정보교환과 습득한 지식을 통해 세종시 정책발굴을 위한 제언사항입니다.

□ 세계화를 지향하는 관광기반 조성이 필요

- 각종 세미나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 마련
 -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선 광역교통체계 구축
 - ⇒ KTX 오송역, 청주공항 연결도로 조기 완공 등
 -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관광 및 비즈니스호텔 등) 건립
- 세종시 만의 독특한 축제를 개발하여 세계화 추진
- 외국관광객이 세종시를 찾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한류를 이용한 쇼핑 및 대규모 놀이시설 단지 조성
 - 전통놀이, 다도회, 한옥마을 등 관광 및 문화콘텐츠 지원
 - 읍면지역에 영화촬영장소를 마련하여 관광객 발길 유도

□ 시민이 즐겨 찾는 레저공간 및 생태공원 추진

-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장 필요
 - 예) 시립 자연생태원
 - 고북저수지, 호수공원 등에 어류, 조류, 곤충, 식물 등의 자연생태관 건립 검토
 - 재미있는 포토존, 전망대 등 시설 다양화
 - 세종시 향토문화 및 설립기념관 등 다각적인 구성



<자연생태관 사진 예시>



<향토문화관 사진 예시>

○ 호수공원에 시민 레저공간 확대 검토

〈호수공원 현황〉

○ 공원면적 : 698,000m²

· 호수(322,800m², 46%) · 공원(375,200m², 54%)

※ 가용면적 : 10,000m²(임시 4주차장)

· 주차면적 : 51,000m²(임시 1~4주차장)

- 가용면적을 활용한 레저시설 확대 설치 검토
 - 레저시설 사례 : 인공암반시설(광교호수공원), 인나인스케이트 경기장(대전 롤러경기장) 등
 - 사계절 정원 마련(벚꽃, 유채꽃, 코스모스, 이팝꽃 등 볼거리 제공)
 - 호수공원에 어울링 확대 설치
- ⇒ 어울링 자전거 증설, 어린이용 및 이색 자전거 확대 설치 필요



〈광교호수공원 인공암반시설〉



〈대전시 인나인롤러경기장〉

○ 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한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 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쉼터 마련
 - ⇒ 설계에서 시공까지 시와 건설청, 산림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필요
- 금개구리 서식지의 보존 및 생태습지 조성
- 체험 및 웰빙 공간 마련(편백나무 군락지, 황토길 조성 등)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단지 조성

- 글로벌 ICT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고려
 - ⇒ 사이버자야와 같은 다양한 혜택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 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스마트 로컬푸드 사업 연계하여 ICT분야 기술역량 집중
 - ⇒ 로컬푸드와 관련하여 세종시의 창조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벤처 및 신생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육성 필요

□ 의료단지 조기 조성 및 노인 의료·복지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

- 건강검진센터 및 종합병원(암센터) 조기 설립 필요
- 가정과 병원을 연계한 노인 의료 복지프로그램 도입 연구
 -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의료상담한 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의료상담
 - 도심외곽 노인의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 시민을 위한 대중문화 여건 시급

- 아트센터(1200석 규모), 시립미술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필요
- 영화관, 소극장(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 공간 확대
- 공연장의 체계적인 주차계획 마련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 및 관람시설 시급
-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및 지원
- 향후 전국체전 유치 대비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 시설 주변 확대가 필요

□ 종합의견

-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는 다양한 문화공간 및 스포츠 행사 개최
 하여 세계화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은 개성적인 관공서, 아름다운 종교시설, 자연미를
 추구하는 공원, 수상스포츠 및 각종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첨단기업도시 사이버자야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ICT분야 글로벌기업 및 벤처업체 입주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정주여건이 적정히 마련되지 않아 시외 출퇴근 근로자로 인해 주말이 되면 거리가 한산하는 등 문제점도 있습니다.
- 따라서, 세종시도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중앙행정을 중심으로 문화, 국제교류, 의료, 지방행정, 대학연구, 첨단지식기반 등 특·광역시로서의 자족기능 기반 조성 과 읍·면지역과의 균형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싱가포르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전원주택지 및 도시공원 조성, 대중교통 대책 마련 등 읍·면지역에서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세종시 관광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종시 특색에 맞는 축제 개발, 전통문화 기반시설과 숙박시설, 쇼핑을 위한 공간 및 대규모 놀이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 이러한 세종시의 주요 정책집행에 있어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해외 행정수도 사례로 본 세종시의 갈길²⁾

임상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현재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수도가 발전하면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행정수도를 이전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워싱턴DC, 캐나다의 오타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호주의 캔버라 등이며, 이번에 세종시의회에서 3박 5일의 일정으로 첫 국외연수로 다녀온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가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모델이기도 한 푸트라자야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말레이시아의 경제와 금융 수도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말레이시아를 이끈 마하티르 총리가 집권 10년째인 1991년 '비전 202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발표한 후,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5년에 걸쳐 완공되어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세종시 건설의 주요한 목표이자 이유이기도 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푸트라자야는 당시 교통 혼잡과 연방제라는 국가체제 상 지방정부의 권한이 막강해 연방정부 직할지인 쿠알라룸푸르 확장이 힘들어 정부가 행정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비용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

²⁾기고문(충청투데이, '14.11.14)

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결정 과정에서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불과 25km가량 떨어진 지역에 행정수도를 세운다고 했을 때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세종시도 부처간 정책 조정의 어려움, 행정부와 의회간의 의사소통 등 업무의 비효율성, 도시 공동화, 수도 이전 비용의 장기적 경제 부담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처럼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전 약 10여년간 많은 위기와 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목표 달성이라는 이면 뒤에는 어느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 도시 건설 초기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푸트라자야도 2010년 기준으로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상당부분의 주거용지가 아직 미개발된 상태이고, 상업시설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공식적인 신도시 건설 완료 시기가 2010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도시개발의 성숙단계에 이르는 것은 너무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예정지역 인구 50만 명과 읍면지역 인구 30만 명을 더한 8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푸트라자야와 세종시의 공통된 문제점인 정주여건 개선과 자족기능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GDP 규모와 경제성장률, 무역규모 등의 경제력과 정치·외교·군사력 등을 포함하는 유형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21세기에는 국가의 매력, 문화, 신뢰 등 무형적 자원이 중요시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건설해야 할 세종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BRT, U-city사업을 통한 최첨단 지능형 스마트 시티, 스마트스쿨 등 충분한 하드 인프라와 함께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핵심 문화 인프라의 조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더불어,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개발 격차에 따른 균형발전 방안과 주민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 방안을 마련해야 진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다.

수상이 먼저 신도시로 이주했다³⁾

김복렬 세종시의원, "선택적 복지가 우리에게 맞는 것"

세종시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실시되는 해외연수여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 방문국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챙겼다. 국민세금으로 가는 해외 연수인 만큼 세종시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지 않았다.

제가 방문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였다. 현지에서 우수한 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그곳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울 것이 많았던 연수였다.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이자 최첨단 행정수도를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시의회를 먼저 찾았다. 이곳 신행정도시 건립사업은 연방정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교통 체증 등 심각한 도시문제 발생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전체 도시 면적의 38%를 녹지 및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친 자연 및 친 환경 도시로 만든 것이 특징이었다. 이곳 역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국민적인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었다. 세종시도 지금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푸트라자야처럼 시간이 지나고 적재적소에 정책이 시행되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다만 세종시와 푸트라자야와 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말레이시아 수상이 40여명의 공무원들과 가장 먼저 이주를 하고 살았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또, 청사 건물보다 교육과 병원관련 시설들이 먼저 지어졌다는 점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 푸트라자야를 성공적인 행

3)기고문(세종의소리, '14.11.28)

정수도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점은 몇 가지 더 있었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시를 건립하여 정부에 위탁했다는 점과 향후 도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각 부처 건물을 단독으로 건립해 확장성을 높였다는 점이 눈이 띄었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포르였다.

리하무이라는 노인 복지시설을 찾았다. 이곳은 정부 보조 30%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연금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구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 효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싼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다는 사실이 주목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국가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가 사회 문제화되고 그걸 해결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보편적 복지보다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절실하게 사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복지는 어떨까하고 생각해보는 연수가 되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이주 정착도 문화, 교육, 상권이 활성화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불편함이 결국은 이주와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직은 세종시가 태동단계이지만 푸트라자야가 10년 걸렸듯이 10년 후 세종시는 분명 달라진 모습, 훨씬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외연수를 마치고

의회협력담당 박대중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해소를 위해 건설한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 ‘사이버자야’, 복지제도 선진국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난 후 느낌은 한마디로 “다녀오길 잘했구나” 였다.

먼저, 푸트라자야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이전하여 명실공히 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와 대비되어 매우 부러웠다.

국민적 반대. 특히,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수상이 먼저 이주한 것과 정부청사보다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완비하여 이주공무원들의 불편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빠른 정착이 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내는 순응적인 국민성, 국교인 이슬람을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종교적 측면이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만들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이버자야는 최첨단 기능도시로 철저히 기획되어 조성한 멀티미디어 허브도시로 Dell, HP, BMW 등 세계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었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면세, 사용료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외기업 유치는 물론 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리하이무 노인복지시설’은 국비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기부활동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외형적 시설보다는 시스템적 측면에서 실속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를 안내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책임자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다고 한다. 원래 어머니께서 운영하신 시설이었으나 어머니가 돌아 가신 후 대를 이어 근무한다고 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곳시설은 8번이나 이사를 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비록 시설은 낡았지만 더운 날씨에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 위생관리가 철저했다. 할머니 한분 한분 악수하고 이야기하면서 밝은 미소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렇듯 아직 시작단계인 우리시가 이러한 선진사례를 기초로 우리시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명품 세종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